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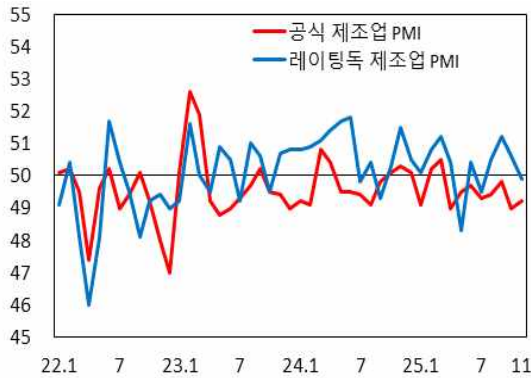
중국 11월 제조업 PMI 상승

1. 11월 PMI의 주요 특징

□ (제조업 PMI) 11월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49.0)보다 상승(+0.2p)하였으나, 8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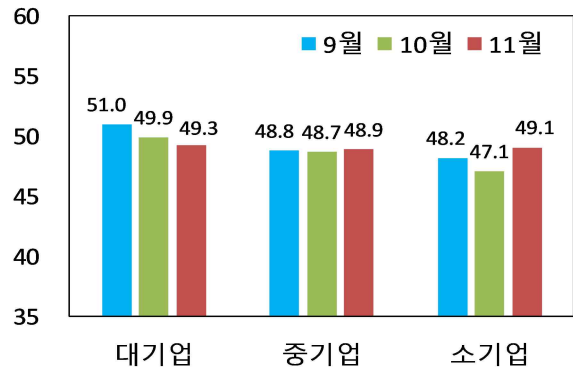
○ 규모별로는 대기업(10월 49.9 → 11월 49.3)은 하락한 반면, 중기업(48.7 → 48.9)과 소기업(47.1 → 49.1)은 상승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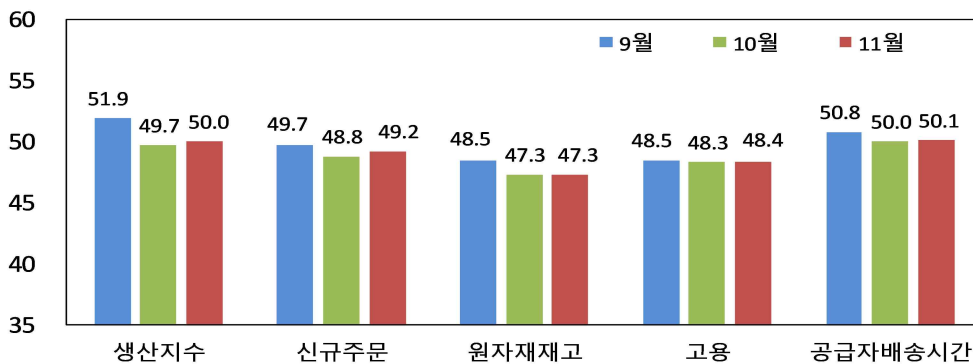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세부 항목별로도 원자재재고(10월 47.3 → 11월 47.3)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생산(49.7 → 50.0), 신규주문(48.8 → 49.2), 고용(48.3 → 48.4), 공급자배송시간(50.0 → 50.1)은 상승

구성항목별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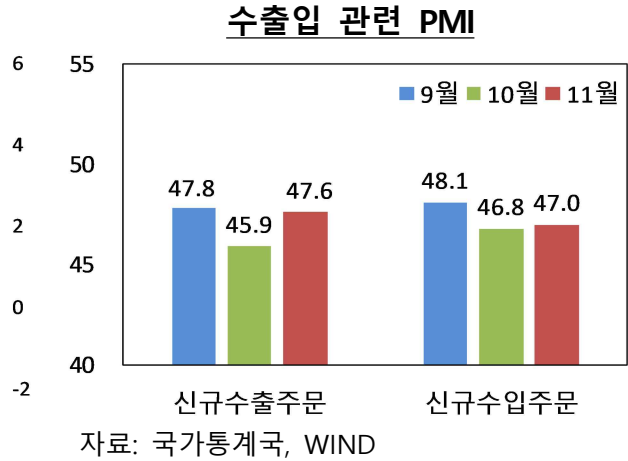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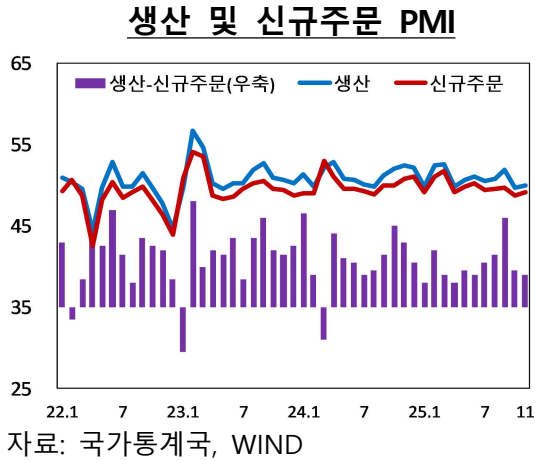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생산지수**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신규주문지수** 간 **차이**는 **소폭 축소***

* 생산지수 - 신규주문지수: (7월) 1.1 → (8월) 1.3 → (9월) 2.2 → **(10월) 0.9** → **(11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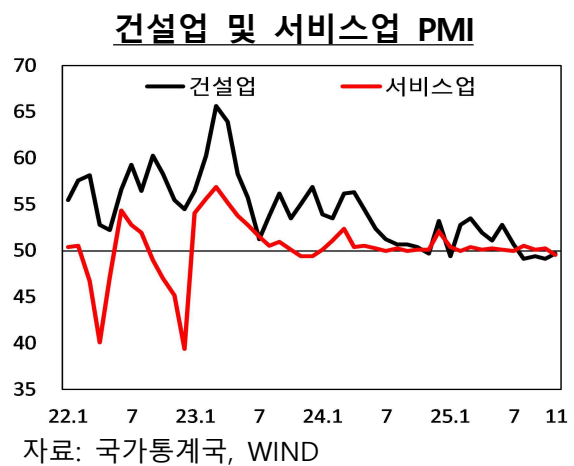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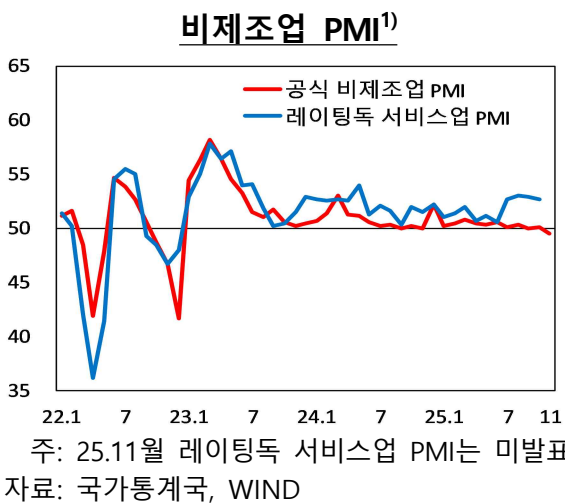
— **신규수출주문**(10월 45.9 → 11월 47.6)과 **신규수입주문**(46.8 → 47.0)은 모두 **상승**



□ **(비제조업 PMI) 11월 비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50.1)에 비해 **하락**(-0.6p)

○ **서비스업**(10월 50.2 → 11월 49.5)의 경우 연휴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철도·항공운송,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14개월만에 기준치 하회(24.9월 49.9)

○ **건설업**(49.1 → 49.6)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4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



□ **(종합 PMI) 11월 종합 PMI*(49.7)는 전월(50.0)에 비해 하락**(-0.3p)

*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

2. 시장평가 및 전망

-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업 PMI가 8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 달성** 및 **내년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제조업 PMI**는 국경절 및 중추절 연휴 이후 생산 재개라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전년동월(11월 50.3) 보다 하회
 - 미·중 무역 협상 진전, 해외시장 다변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신규수출주문) 개선이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
 - 수요 부족 영향으로 기업이 원자재 구매를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향후 제품 생산에 따른 재고 부담은 완화
 - * 구매량 PMI: (7월) 49.5 → (8월) 50.4 → (9월) 51.6 → (10월) 49.0 → **(11월) 49.5**
 - 완제품 재고 PMI: (7월) 47.4 → (8월) 46.8 → (9월) 48.2 → (10월) 48.1 → **(11월) 47.3**
 - **가격지표***의 경우 원자재구매가격 및 출하가격 PMI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제약됨에 따라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
 - * 원자재구매가격 PMI: (7월) 51.5 → (8월) 53.3 → (9월) 53.2 → (10월) 52.5 → **(11월) 53.6**
 - 출하가격 PMI: (7월) 48.3 → (8월) 49.1 → (9월) 48.2 → (10월) 47.5 → **(11월) 48.2**
 - **비제조업 PMI**의 경우 건설업은 겨울철 기상 요인, 연말 인프라 건설 추진 속도, 구조적 정책금융 지원 효과 등에 따라 향후 흐름이 최우될 전망이며, 서비스업은 중국정부의 서비스 소비 진작, 증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나 부동산 시장 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구조적 통화 정책수단, 지방정부 재정지원 강화, 국채 매매 재개*** 등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
 - 시장에서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둔 가운데,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여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4분기 도입된 구조적 정책금융 지원 효과, 인민은행의 국채 매매 재개 등에 높은 관심(国盛証券 등)